

안녕하세요 위클리예요

[Weekly: 2026/01/26~2026/02/01]

2026.02.02

[로봇] 이제는 수급

- 현대차 노조의 로봇 도입 반대에, 이재명 대통령 "피할 수 없다"
- 대기업들 4Q 실적 컨콜에서 자주 언급되는 로봇. 삼성도 올해 휴머노이드 성과
- 테슬라, 모델 X/S 라인 옵티머스 생산라인으로 전환. 피규어 AI는 헬릭스 02 공개

[방산] 오딘의 창, 궁니르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노르웨이 천무 1.3조원 계약, 미국 2조원 탄약 공장 건설
- KAI를 방문한 사우디 공군사령관. KF-21 중동 마케팅 노력 계속
- 유럽 SAFE 대출 속도 승인. 폴란드 437억 유로 승인. 루마니아는 세부 내역 공개

[조선] 캐나다 특사단의 성과 정리

- 이제 아시아나 항공기에서 대한항공 기내식을 먹을 수 있다
- 중국의 일본 여행 자제 권고는 설 연휴까지 연장
- 사우스웨스트항공, 좌석 요금 부과 본격화. LCC 전략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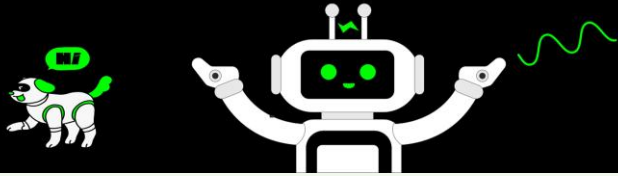
[항공] 사우스웨스트가 내린 결단

- 모잠비크 LNG의 프로젝트 재개. 더욱 타이트해질 29년 납기 LNGC 슬롯
- 중국 조선소의 LNGC 수주 랠리. 슬롯 소진의 기회일까
- 강훈식 특사단 캐나다 방문 성료. 이번 주에는 캐나다 국무장관이 방문해 후속 협의

[해운] 아시아발 컨테이너 운임 하락

- 美 항모 배치에 이란 실사격 훈련 맞대응. 안개 속으로 빠진 수에즈 운하 정상화
- 포스코, 2026년 CAPEX 11조원 이상. HMM 인수 지난해 예비 검토 후 진전 없음
- 북극항로, 36개 워팀 신포탄. 올해 9~10월경 북극항로 시범운항 추진 예정

안녕하세요 로봇 위클리예요



Weekly Keyword

이제는 수급

로봇 섹터는 이제 기대감을 넘어 수급 요인이 중요해지는 중. 이재명 정부의 코스닥 부양 의지에 코스닥 150 ETF로 수급 집중. 동 ETF 내 로봇 비중은 약 7% 수준.

로봇/기계/운송/조선 양승윤
02) 368-6139_syyang0901@eugenef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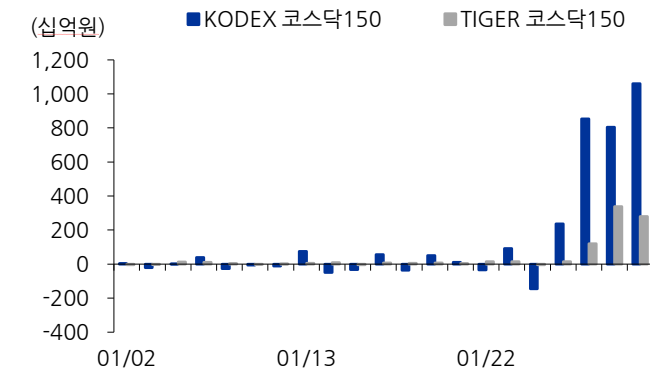


What's new? - 로봇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 시리즈(113)

[이제는 수급]

- 로봇 산업에 대한 기대감과 편견멘털을 넘어서, 이제는 수급적인 요인 또한 중요해지고 있음. 최근 이재명 정부가 대선 공약 '코스피 5,000pt'를 달성한 이후 다음 목표로 강력한 코스닥 부양 의지가 확인됨에 따라, 코스닥 150 ETF로의 수급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임.
- 코스닥 150 ETF 내에서 로봇 관련 기업의 비중이 약 7%를 차지하고 있는 바, ETF 자금 순유입에 따른 로봇 주 매수 강세 흐름에도 지속 관찰이 필요하다는 판단. KODEX 코스닥 150내 로봇 비중은 다음과 같음. 레인보우로보틱스 2.49%/로보티즈 1.59%/에스피지 0.93%/클로봇 0.64%/유일로보틱스 0.36%/유진로봇 0.28%/큐렉소 0.26%/하이젠알앤엠 0.19%(1월 30일 기준)

Key Chart: 코스닥 150 ETF 순유입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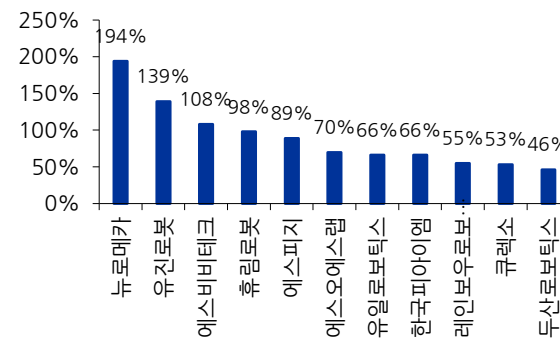


자료: 유진투자증권

국내 로봇 기업 및 코스닥 시총 합계 추이



국내 로봇 기업 1M 시총 변화 Top 10



자료: Quantwise

로봇 주요 뉴스(01/26~02/02)

[전통 로봇(산업용/서비스)]

- 티로보틱스, 북미 배터리 공장에 AMR 300대 구축

- 엔젤로보틱스, 말레이시아에 재할 로봇 출시

[휴머노이드]

- 삼성전자, 휴머노이드 사업 성과 내는 한 해가 될 것

[부품/SW/기타]

- 고동진 "현대차 노조 로봇 반대,李정부가 역할 해야"
- 이 대통령, 로봇 막는 노조에 "거대한 수레 피할 수 없다"
- 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속도 조절론'
- 로보티즈, 작년 매출 389억원으로 사상 최대
- 로보티즈, 로봇 핸드 및 핑거 액츄에이터 공식 출시
- 로보티즈, 우즈벡 현지법인 설립 나서. 294억원 출자
- 유일로보틱스 차세대 로봇 구동장치 국산화
- LG전자 "홈로봇, 솔루션·부품 경쟁력으로 차별화"
- LG엔솔, 휴머노이드용 전고체 2030년 상용화
- LG엔솔, 테슬라 및 中 휴머노이드 업체와 배터리 논의
- 대성하이텍, 로봇 CDMO 사업 본격 진출
- 엔비디아, 韓 '위로보틱스'에 200억 투자 추진

[Global]

- 테슬라, 모델S·X 단종, 옵티머스 생산라인으로 전환
- 가트너 "휴머노이드 28년까지 현장 도입 매우 제한적"
- 피규어 AI, Helix AI 02 버전 공개
- 일본 화낙 3Q25 순이익 전년비 14% 증익
- 아마존, 사무직 1.6만명 추가 정리하고
- 美 반도체 TI, 생산라인에 中 유비테크 휴머노이드 투입



Weekly Keyword

캐나다 특사단의 성과 정리

캐나다 잠수함 특사단 방문 일정 종료. 캐나다가 요구하는 절충교역 요건 충족을 위해 대규모 협력을 약속하고 돌아왔음. 이번 주에는 캐나다 국무총리가 방한해 후속 협의를 진행할 예정.

로봇/기계/운송/조선 양승윤

02) 368-6139_syyang0901@eugenefn.com



What's new? - 조선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 시리즈(41)

[캐나다 특사단의 성과 정리]

- 강훈식 비서실장이 이끄는 캐나다 잠수함 특사단의 캐나다 방문 일정이 종료됨. HD현대 및 한화오션은 물론, 현대차 등도 동행.
- 방문 기간 동안, (1) 카니 총리에 이재명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2) 한화 그룹이 캐나다 기업 5곳과 MOU를 체결했으며(우주, 방산, 철강 등), (3) HD현대오일뱅크가 조단위 원유 구매 의향을 전달함. 그리고 (4) 현대차가 미래 모빌리티 분야 협력을 약속하고 (4)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희토류 개발 MOU를 체결했음. 캐나다가 요구하는 절충교역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대규모 산업 협력을 약속.
- 이번 주에는 캐나다 국무총리가 방한하여 후속 협의를 진행할 예정. 캐나다 잠수함은 3월 RFP 마감, 5~6월 결과 발표 예상. 독일과 치열한 경쟁 속 아직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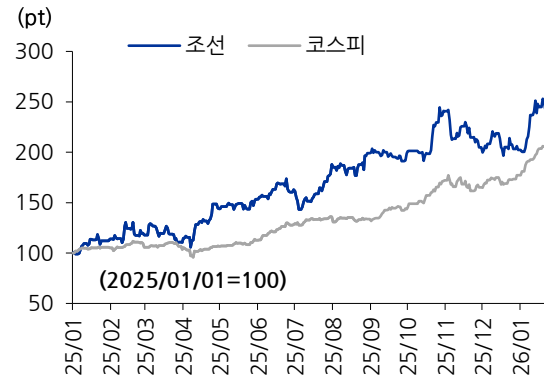
Key Chart: 한화캐나다 MOU 체결 현황

한화-캐나다 기업 MOU 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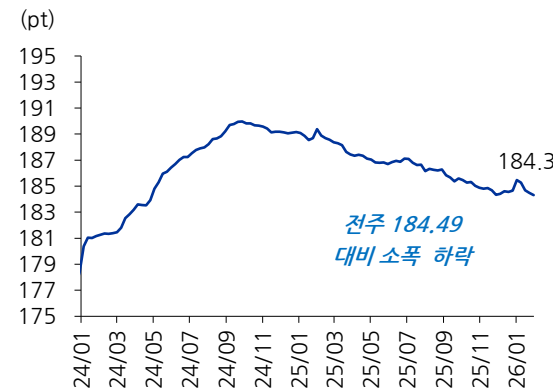
한화 계열사	캐나다 기업	MOU 내용
한화오션	알고마스틸	캐나다 현지 강재 공장 건설
한화오션-한화시스템	코허어	잠수함 건조에 사용될 철강 제품 안정적 공급
한화시스템	텔레셋	잠수함 시스템에 적용할 특화 AI 기술 개발
	MDA 스페이스	저궤도 위성 통신 협력
	PV 랩스	방산 및 안보 목적 위성 통신 기술 협력
		전자광학 및 적외선 센서 기술 고도화

자료: 언론보도, 유진투자증권

국내 조선사 및 코스피 시총 합계 추이



신조선가 추이



자료: Quantwise, Clarksons

조선 주요 뉴스(01/26~02/02)

[상선/해양]

- 삼성중공업 LNGC 2척 수주. 선가 252백만달러
- 삼성중공업 VLEC 2척 수주. 선가 149백만달러
- 파노스, HD현대중 수에즈막스 2척, PC 4척 LOI
- Northern Lights, LCO2선 韓中에 4척 발주
- HD현대삼호, 그리스 선주로부터 수에즈막스 2척 수주
- HD현대 및 삼성중 수주 LNG선 17척 신조 '현실화'

[특수선]

- 강훈식, 加 카니 총리에 李대통령 친서 전달
- 캐나다 국무장관 방한, HD현대-한화오션 만나 막판 조율
- 특사단 방문 기간 캐나다서 韓加 자동차 포럼 개최
- 韓加, 차방산-우주-희토류 등 민간 산업 협력 강화
- 韓캐나다 군사기밀 보호협정 국무회의 의결
- 한화, 캐나다 기업 5곳과 대규모 협력. 수주 총력전
- HD현대, 수조원 캐나다 절충교역 제안. 원유수입 등
- KDDX, 3월 입찰공고부터 7월 계약 로드맵 공개

[기타]

- K-조선, LNG 운반선 독점 흔들. 중국 '저가 공세'
- HD현대 정기선, 印 모디 총리 회동. 합작 조선소 논의

[글로벌]

- 올해 첫 노후 증기터빈 LNG선 해체매각 성사
- 에버그린, 컨테이너선 23척 中 조선소에 발주
- 토탈에너지, 모잠비크 LNG 프로젝트 재개
- 加 최대 조선소 시스팬, TKMS 우군 합류
- 말레이 MISC, 후동중화에 최대 6척 LNGC 발주



Weekly Keyword

사우스웨스트가 내린 결단

미국의 사우스웨스트항공이 54년간 유지했던 좌우 좌석 선택 정책을 종료함. 위탁수화물도 유료화. 경쟁 심화 및 비용 상승 압박 속 수익성 제고를 위한 결단. 한국도 고민이 필요한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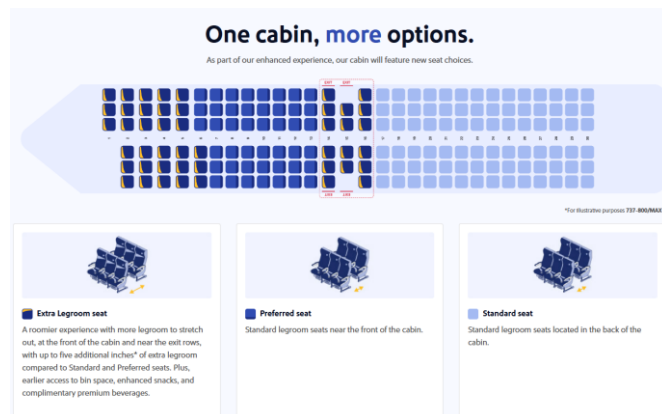


What's new? - 항공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 시리즈(61)

[사우스웨스트가 내린 결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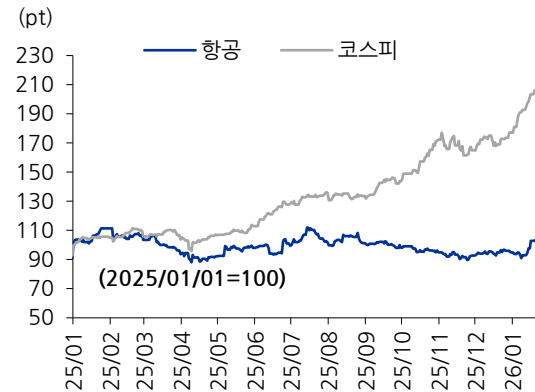
- LCC 모델의 표본이었던 미국의 사우스웨스트항공이 54년 동안 유지해왔던 자유 좌석 선택 정책을 종료하고 좌석 지정 유료화를 추진. 이뿐만 아니라, 수화물 무료 정책을 종료하고 위탁 수화물에 대해 요금 부과도 실시. 이후 주가는 실적 개선 기대감을 반영하며 급등.
- 항공사간 경쟁이 심화되고, 비용 압박이 커지는 상황에서 무료 서비스를 대거 유료화 하면서 수익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움직임. 한국도 점진적으로 LCC들의 서비스 축소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 수화물은 무료 서비스의 영역.

Key Chart: 사우스웨스트 유료 좌석 지정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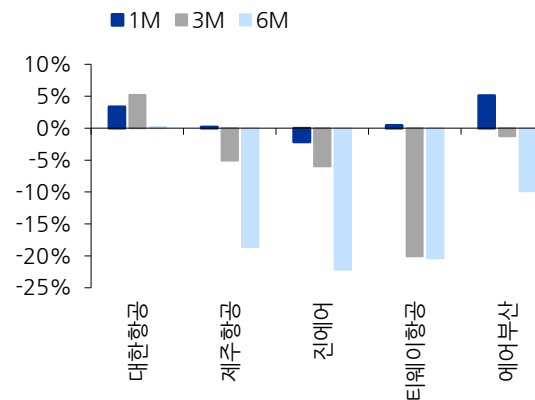


자료: 사우스웨스트항공, 유진투자증권

국내 항공사 및 코스피 시총 합계 추이



국내 항공사 시총 변화



자료: Quantwise

항공 주요 뉴스(01/26~02/02)

[여객/화물]

- 에어부산, 하계 성수기 부정기 4개 노선 운항 확대

[기업별 이슈]

- 대한항공-파블로항공 전략적 지분투자 계약
- 아시아나, 대한항공의 기내식과 서비스 용품을 순차 도입
- 티웨이, 2분기 인천공항 T1 라운지 운영
- 제주항공, 전 직원 '안전 격려금' 지급
- 티웨이항공, 소노인터 청약 동참에도 유증 목표액 감소

[기타]

- 통합 LCC 출범 앞둔 에어부산, 임금협상 난항
- 인천공항 1터미널 동편 면세품인도장 폐쇄
- 항공기 소음부담금 할증, 심야→저녁·새벽까지 확대

[글로벌]

- 中, 설 연휴 일본 여행 자제 권고. 무료환불 추가 연장
- 日정부, 항공사에 지속가능항공유 구입 보조금 지원
- 사우스웨스트 항공, 좌석 요금 부과 시작
- 미-베네수 하늘길 7년 만에. 아메리칸항공, 직항 운항
- 中 C919, '생산 절벽' 넘어 가속. 올해 28대 인도 목표



Weekly Keyword

홍해 긴장 재점화

미국-이란 긴장 고조되며 수에즈 운하 운항 재개 가능성은 불투명해진 상황. 이는 연초 이후 4주 연속 하락중인 SCFI 하방을 지지, HMM을 비롯한 원양 선사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로봇/기계/운송/조선 양승윤

02) 368-6139_syyang0901@eugenefn.com

RA 임범수

02) 368-6168_beomsu@eugenef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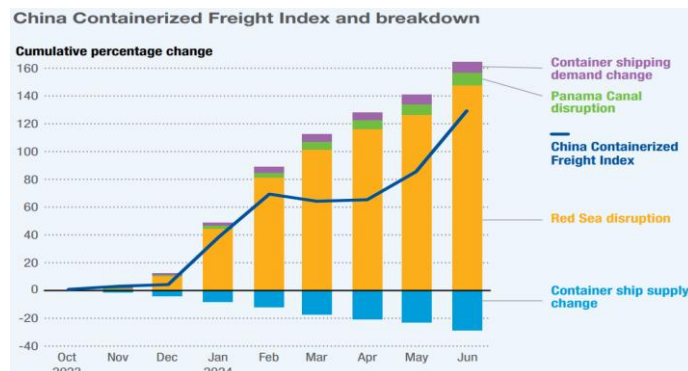


What's new? - 해운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 시리즈(4)

[홍해 긴장 재점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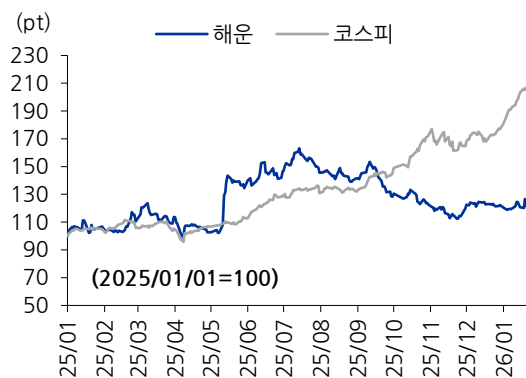
- 1/26 후티 반군이 선박 공격 재개 가능성을 시사한 이후, 1/29 미국은 걸프 해역에 항모전단을 배치. 이에 이란은 2/1부터 실사격 훈련을 예고하며 연초 일시적으로 해소되었던 중동 지정학 리스크 재점화.
- 지난주 글로벌 대형 선사들의 수에즈 운하 복귀 결정이 엇갈린 가운데, 수에즈 운하 재개 가능성 불투명해진 상황. Vespucci Maritime에 따르면 홍해사태 이후 희망봉 우회로 약 140~170만TEU 선복량(글로벌 선복량의 5~6%) 감소. 상위 10개 선사 수에즈 운하 복귀 가점시 약 200만 TEU의 선복량이 증가하며, SCFI 하락 속도는 가팔라질 것으로 판단.
- 3Q25 HMM 유럽 노선 매출 비중은 34.5%로, 수에즈 운하 재개에 따른 운임 변동 민감도 높음. 수에즈 운하 재개 지연은 '26년 공급 부담 속 '운임 하락 속도 완화' 측면에서 동사에 단기 완충재로 작용할 전망.

Key Chart: 홍해 해상운송 차질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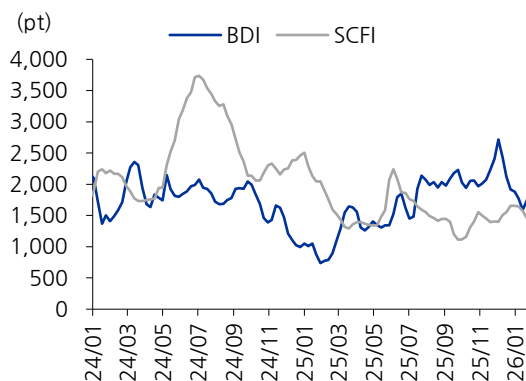


자료: UNCTAD, 유진투자증권

국내 해운 기업 및 코스피 시총 합계 추이



해상운임 추이



자료: Quantwise, Clarksons

해운 주요 뉴스(01/26~02/02)

[벌크선]

- Drewry, 리튬 광석 수요 증가는 중소벌크선에 기회
- Atlantica Shipping, 건화물 벌크선 시장 재진출
- Stena Bulk, GSB 자본인수 통해 최대주주 등극

[탱커/가스선]

- 美 항모 배치, 이란 실사격 훈련...호르무즈 해협 일촉즉발
- 후티 반군, 홍해 항해 선박 공격 재개 시사...이란 긴박화
- EU 국가 이어 영국도 그림자 선대 규제강화
- KSS해운, 장기대선계약 7건 체결...총 8,260억원 규모

[컨테이너선]

- 포스코홀딩스 "HMM 인수, 예비 검토 후 진전 없다"
- 고려해운, 장금상선 신조 대형선 확보를 통한 경쟁력 강화
- CMA CGM 소유 컨 선단 400척으로 증가
- 2026년에도 노후 컨테이너선 재활용 부진 예상
- '춘절 특수' 실종...컨테이너선 7척 중 1척 '운항 취소'
- 작년 부산항 컨테이너 물동량 역대 최대 경신
- 쑤-북미 수출항로 2025년 컨테이너 운송량 역대 최고

[기타]

- 트럼프 "韓 관세 25% 복원"...불확실성 커지나
- EU-인도, FTA협상 마무리 수순...정상회담서 공식 발표 예정
- 해수부, 북극항로 활성화 민간협의회 29일 출범
- 현대글로벌비스, 해운 부문 호조로 지난해 영업이익 2조 돌파